

# 함평군 먹거리 종합계획 '월급 받는 농부' 육성

### 푸드플랜 4대 전략 16개 과제 추진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 150만원 월급 농부 2000가구 육성

함평군이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월급 받는 농부' 육성에 나섰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함평군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향후 5년에 걸쳐 4대 전략 16개 과제를 실행한다. 푸드플랜은 함평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품 등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

비 전체를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군민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함평 먹거리 종합계획 4대 정책과제는 관계시장 창출, 기획생산체계 구축, 공공형 운영체계 확립,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다. 이를 통해 월 소득 150만원 이상 월급 받는 농부 2000 가구를 육성하고 연간 매출액 400억원을 달성한다. 소규모 농가의 생산물을 유통·판매·소비까지 연결하

는 체계를 구축해 함평군 농산물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생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판매를 위해 지역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월야면 로컬푸드 직매장 외에도 하나마트 내 로컬푸드 코너를 확대하며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신활력혁신센터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건립한다. 공공급식 분야에서 학교급식, 어린이집·유치원에 함평산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공유농장을 활용해 학교급식에 로컬푸드를 납품하도록 하고 생산공동체

조직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은 농산물 유통을 넘어 농가 소득 양극화 해소, 가족농의 유지 재생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 실현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함평농업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함평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내년 12월 출범시킬 계획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모집 담양군, 22일까지 10명

담양군은 22일까지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 가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 담양군민이다.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신청자 가구소득, 재산, 재정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해 상위점수 순서에 의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에는 가점이 주어진다. 사업 기간은 공공근로는 3월부터 5월까지이며 사업은 공공업무 지원, 환경정비 등으로 구성된다. 읍·면사무소 일자리 업무담당자 또는 담양군청 투자경제과(061-380-3137)에 문의하면 된다. **조진용 기자**

### 꿈놀자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3월2일부터 '2023년 곡성군립 꿈놀자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꿈놀자 오케스트라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2차 모집도 진행할 예정이다. 꿈놀자 오케스트라는 지역내 3곳의 중학교의 신입단원과 기존단원 1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본기 습득과 기초부터 단계별로 연습하는 방식의 캠프도 진행됐다. **곡성=김대영 기자**

###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곡성군, 지난해 25위→올 15위↑

곡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곡성군은 전국 85개 군 단위 지자체 중 15위를 기록해 지난해 25위 대비 10단계 상승했다. 또 평가 등급이 '보통'에서 '우수'로 상향돼 특별교부세 등을 받게 됐다. 곡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데이터 기반의 지방행정 혁신,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 도입 및 확산 3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신규 시책으로 장애인 가구·독거노인 대상 이동식 세탁서비스를 운영했으며 디지털 정보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참가 접수 구례군, 7월16일까지

구례군이 오는 9월10일 열린 예정인 국제 철인3종경기 '2023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 참가 신청 접수가 7월16일까지 대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참가비는 얼리버드 프로모션 기간인 22일까지 600달러이며 이후 기간에 따라 670달러, 740달러로 책정됐다. 국제 철인3종경기대회(WTC)가 주최하는 폴코스 대회로 수영 3.8km, 자전거 180km, 달리기 42.2km로 이어지는 극한의 경주다. 구례군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가 공동 주관해 2014년부터 구례군에서 매년 열고 있다. 구례 대회는 세계 챔피언십 참가권을 얻을 수 있는 정식 폴코스 대회로 지리산과 섬진강 자연 속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구례=김상현 기자**



**장성군,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호평'**  
장성군이 전남 최초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품평회를 개최했다. 품평회에는 전남도에서 선정한 5개 공급업체가 참여해 총 11종의 전기운반차를 선보였다. **장성군 제공**

## 해양영토 수호·섬 고부가가치화 모색 학술대회

### 전남대 무인도서연구소 24일 학술발표회·정기총회

해양영토 수호와 섬의 고부가가치화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대학교무인도서연구소(센터장 오강호)와 한국도서(섬)학회(회장 이용규)는 오는 24일 전남대학교 G&R HUB 1층 세미나실에서 '해양영토 수호와 섬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 및 동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인도서연구소는 해양영토 연구와 관련해 제1차 무인도서 실태조사(2007~



2012)를 수행한 유일한 기관으로 제2차 무인도서 실태조사(2018~2027)도 주관기관으로 연구사업을 수행 중이다. 한국도서(섬)학회 학술대회는 유인도서뿐 아니라 무인도서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섬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 바다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해양영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시기에 '무인도서에 관한 보전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한국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영해 기점 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오강호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소장은 "섬은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전진기지"라며 "'섬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상식과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섬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연구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 전남농기원 육성 쌀 '강대찬' 농협 손잡고 명품브랜드로

### 내년까지 2만8000ha 보급

전남농업기술원이 전남 쌀 이미지 개선과 명품화를 위해 농협과 공동으로 육성한 '강대찬' 벼를 신동진 대체 품종으로 육성한다. 20일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농기원과 농협은 '새청무' 쌀이 전남 대표품종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명품화 2단계 사업으로 '강대찬' 쌀 이미지 구축에 나선다. 농협 광역브랜드 '풍광수토' 원료곡을 기존 신동진에서 재배 안정성이 우수한 '강대찬'으로 대체한다. 신동진은 정부가 다수확 품종의 공급 축소계획에 따라 육성 품목에서 제외된다. **전남농기원 제공**



전남농기원은 지난해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순도 '강대찬' 중자 877톤을 생산해 자율교환하고 '풍광수토' 시판과 단일브랜드 개발 등 브랜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농기원 제공**

지난해 전남 벼 재배면적 2.8%를 점유한 강대찬 품종은 올해 10% 이상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대찬은 새청무와 함께 사·군 공공비축미로 선정돼 재배 면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강대찬은 2020년 전남농기원이 개발한 품종으로 쌀이 맑고 깨끗하며 수발아, 도복(쓰러짐) 등 재해에 강하고 도정율이 높아 밥맛이 우수한 것이 장점이다. 전남농기원은 올해 고품질 강대찬 벼 중자 1700톤을 생산해 오는 2024년까지 2만8000ha에 보급할 계획이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농도 전남 쌀이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 맞춤형농기계 구입 지원 호평 영광군, 농가 경영안정 도모

영광군(군수 강종만) 농업인 영농규모별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중·대형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수도작 2ha 이상, 과수 0.5ha 등 규모 농가에서 선호하는 중·대형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1농가 5년 이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며 트랙터, 이앙기, 콤팩트 등 대형농기계 구입도 가능해져 신청률이 높다. 영세·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00대를 증대할 예정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농가 호응도가 높은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대운 기자**

### 산림과수 재배관리기술 설명회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과수 전지·전정 시기를 맞아 '산림과수 재배관리기술 현장설명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수종별 핵심 재배관리 기술과 재배 현장 문제점 해결방안을 지도했다. 과수별 재배 특성 소개와 증식, 식재 방법, 시비, 수형 관리, 수확에 이르기까지 핵심 재배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연구소내 보유자원을 활용한 현장실습을 함께해 관리기술 역량을 증진했다. 공무원, 재배농가 등이 참여한 설명회는 산림과수 지역 적응성 검정시험을 목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에 조성된 토종다래, 뽕, 대추나무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현장설명회를 계속 열어 입업인과 재배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지역에 적합한 산림과수 유전자원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